

준중형 세단의 부활 ... SUV 인기에도 도전한다



현대차 '올 뉴 아반떼'

준중형 세단이 부활할까. 생애 첫 차로 인기가 높았던 준중형 세단의 위상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인기에 밀려 존재감이 시들해졌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업계에서 준중형 세단이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준중형 모델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현대자동차 아반떼가 완전 변경 모델을 출시한 데 이어 기아자동차도 K3 연식 변경 모델을 선보이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7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7일 7세대 아반떼 '올 뉴 아반떼'를 정식 출시했다. 7세대 아반떼는 사전계약 하루 만에 1만58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아반떼 한 달 평균 판매 대수인 5175대의 두 배 수준을 뛰어넘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여기에 2015년 나온 6세대 아반떼의 첫날 사전계약 규모 1149대에 비해 9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990년 1세대 아반떼(엘란트라)가 나온 이래 최대

현대차 7세대 아반떼 '올 뉴 아반떼' 출시 '베스트셀링카' 등극
기아차 '2021년형 K3' 20~30대 고객 선호 사양 경쟁력 높여

기록을 세웠다.

이후 사전계약 총 1만6849대를 달성하면서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려운 상황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의 '베스트셀링카'이자 국내 준중형 세단계의 최강자로 꼽히는 '올 뉴 아반떼'는 스포티한 디자인, 3세대 신규 플랫폼으로 향상된 안전성, 실내 공간, 연비 효율, 차급을 뛰어넘는 최신 첨단 안전 편의사양이 특징이다.

여기에 합세해 기아차도 준중형 세단 K3의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겨레가던 국내 준중형 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내 준중형 세단은 소형 SUV에 밀려 과거의 위상이 크게 추락한 상황이다. 르노삼성(SM3)과 쉐보레의 크루즈도 단종돼 아반떼와 K3 신차 출시가 국내 준중형 시장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일 출시된 K3의 연식 변경 모델 '2021년형 K3'는 주 고객층인 20~30대 고객이 선호하는 사



기아차 '2021년형 K3'

양을 기본화하면서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스탠다드,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세 가지 트림으로 운영되는 2021년형 K3는 준중형 차급에서 고객 선호도가 높은 버튼시동 스마트키와 인조 가죽시트가 동시에 기본 적용됐다.

기존 프레스티지 트림 이상에서 적용할 수 있었던 운전석 파워시트·전동식 허리지대, 후대폰 무

선 충전 시스템, 뒷좌석 히트드 시트·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등을 스탠다드 트림부터 선택 사양으로 운영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소형 SUV가 강세인 자동차시장에서 성능을 높이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준중형 세단이 새롭게 출시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

현대차, 반려견 헌혈 '아이엠 도그너' 캠페인 시즌2 진행

헌혈문화 확산·인식 개선

헌혈카 운영 전국 확대

현대자동차는 한국헌혈연합회와 국내 반려견 헌혈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아이엠 도그너'(I'M DOGNOR·반려견 헌혈카) 캠페인 시즌2를 진행한다(27일 밝혔다).

〈사진〉

도그너(DOGNOR)는 반려견(DOG)과 헌혈 제공자(DONOR)의 합성어다. '반려견 헌혈카' 캠페인은 국내 반려견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반려견 혈액 수급의 90% 이상이 수혈용으로 사용되는 공혈견으로부터 공급돼 헌혈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캠페인 시즌1을 통해 다양한 채널의 캠페인 소개와 헌혈카 운영으로 많은 고객의 응원 메시지와 참여를 이끌어냈다.

현대차와 한국헌혈연합회는 이번 시즌2에서 반려견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의료 인력을 늘리고 소요시간을 줄이는 등 고객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의료진을 지난해 1개에서 올해 전국 8개 한국헌혈연합회 연계 병원으로 늘려 헌혈카의 운영 횟수와 찾아가는 지역을 확대한다.

또 헌혈 적합성 판정을 위한 사전 종합 혈액검사 중심으로 운영해 대기시간을 30



분으로 단축하는 등 하루 검사 가능한 반려견 수를 늘린다. 참여자는 사전 혈액검사로 심장사상충, 진드기매개질병 검사 등 반려견의 건강상태와 혈액형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 솔라티를 개조해 제작된 헌혈카는 안전하게 혈액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신 장비를 구비했으며,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을 돌며 의료진들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검사결

과를 토대로 긴급 수술 상황 발생시 대응 가능한 헌혈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반려견 헌혈카 캠페인 시즌2를 통해 반려견 헌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현대차 모빌리티의 다양한 역할 제시를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8세대 쏘나타 연식변경 모델 '2020 쏘나타' 출시

현대자동차는 8세대 쏘나타의 연식변경 모델인 '2020 쏘나타'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현대차에 따르면 2020 쏘나타는 정숙성과 주행능력이 향상돼 상품성이 더 강화됐다.

2020 쏘나타의 전체 모델에 윈드실드 몰딩과 기존보다 두꺼워진 1열 픽스드 글라스를 적용해 정숙성을 더 높였고, 가솔린 2.0에는 이중 접합 차음유리를 추가해 소음을 저감시켰다.

또 가솔린 2.0의 변속 패턴 변경을 통해 가속 응답성을 높였으며,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선호 사양도 확대 적용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트림인 프리미엄 패밀리와 프리미엄 밀레니얼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기본 탑재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에는 프로텍션 타입 풀 LED 헤드램프도 기본 적용됐다.

2020 쏘나타의 가격은 트림별 개별소비세 1.5% 기준 ▲가솔



린 2.0 2326만원~3217만원 ▲센슈어스(1.6가솔린 터보) 2427만원~3287만원 ▲하이브리드 2754만원~3579만원 ▲LPi 2.0(일반판매용) 2575만원~3232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토요타코리아, 긴급견인 무상서비스 기간 2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

토요타코리아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긴급견인 무상서비스 기간을 4월부터 10년으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토요타 고객이 교통사고나 운행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가까운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까지 1회당 50km 이내에서 무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긴급견인 무상서비스'를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2010년 4월 등록 차량에게까지 소급 적용해 실시하고, 고객 편의를 위해 토요타 고객 지원실(080-525-8255)을 통해 24시간 사고보험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한다.

여기에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긴급견인 거리가 50km 이상인 경우에도 고객이 부담하는 초과운송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강대한 토요타코리아 상무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문제 발생에도 고객이 한층 더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며 "최고의 고객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